

	보도자료	충남도당
2017년 7월 7일(금)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우승윤 정책실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010-3406-5528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충남세종이 역사적 정권교체 이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민심청청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승리에 앞장선 충남·세종 지역의 당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직접지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앞장서 주신 충남도민과 세종시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종시당의 이해찬 위원장님과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아니었다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남도민과 세종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 지도부의 충남 방문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민에게 약속한 14개의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과 당 차

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 도당위원장은 “충남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의 태풍’을 일으킨 선봉장이었다고 자부한다”며 “실제로 충청 승리가 곧 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 우리 당은 성실한 공약이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신 210만 충청도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14개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도 충청도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공약이 없는 만큼, 추미애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로자 15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는 KTX 천안아산역사 2층에 위치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직접지구 준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역균형 발전은 강소기업들이 지역에 잘 뿌리를 내리고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의 생산거점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진정 지방의 삶이 좋아지고 지방분권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R&D가 이제는 지방의 생산 현장으로 산·학·연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R&D 자금을 재편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렇게 되도록 약속도 하겠다”고 전했다.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은 “천안과 아산은 충남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주요 도시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에 R&D 집적지구를 만드는 것은 단지 천안과 아산만의 미래 먹거리가 아닌, 충남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